

대한민국 최초 국립공원박람회에 오라

자치CEO

우승희
영암군수

올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영암군에서 '2024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박람회'가 열린다. 국립공원을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최초 박람회다.

국립공원(National Park)은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는 자연공원이다. 종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은 곳, 청정한 자연환경이 영감과 휴식을 주며 교육문화적 기능을 하는 장소, 학술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세계 최초 국립공원은 1872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현재 산악형 18개, 해상해안형 4개, 사적형 1개로 총 23개다.

국립공원은 보유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국립공원은 보존해 온 지질과 습지 등 생태자원으로 숨과 쉼을 준다. 산과 바다, 나무와 물을 통해 치유와 힐링을 선물한다. 천연기념물과 문화재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국가보호종과 멸종위기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중요한 탄소저장고 역할도 한다. 국립공원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한 해 탄소 배출량 절반을 흡수하는 것도 국립공원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전 세계의

합의가 요원한 지금, 국립공원은 지구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처음으로 합의를 이뤄낸 제도임도 명심하자.

월출산의 면적은 56,220㎢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작다. 영암과 월출산은 역사문화 자원이 많다. 구정봉 큰 바위열굴, 육형제바위, 사자봉, 통천문, 남근바위, 책바위, 배틀굴, 돼지바위, 남생이바위 등 기암괴석이 전시된 바위정원이다. 하늘 아래 첫 부처인 국보 144호 마애여래좌상, 국보 50호 도갑사 해탈문, 고운 유약 도기 첫 생산지, 우리나라 무화와 시배지, '아리랑 동동 소리랑 동동' 영암아리랑의 도시가 영암이다.

영암 사람들에게 월출산은 자긍심이다. 영암군 이름이 월출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영암(靈巖)의 뜻은 '신령바위'다. 옛날 중국사람이 월출산 움직이는 바위를 산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스스로 올라왔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영암은 곧 월출산이다.

신령바위 덕분일까, 영암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왔다. 일본 아스카 문화의 비조가 된 K-문화의 원조 왕인박사,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을 예언했던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국사, 후삼국의 통일을 예지한 꿈박사 최지몽, 대한민국 헌법 기초위원으로 활동한 낭산 김준연 등이 그렇다.

월출산은 1988년 6월 스무 번째 국립공원에 지정됐다. 하지만 개발보다는 보존이 중심인 국립공원의 특성 때문에 케 이블카 설치가 좌절되는 등 영암군민은 아쉬움도 경험했다.

영암과 국립공원 월출산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생각을 이어가던 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해설한 '우리의 위대한 국립공원(Our Great National

Parks)' 다큐멘터리를 만났다. 대한민국 최초 국립공원박람회는 그 순간 시작됐다.

2년의 준비 끝에 영암군이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한다. 처음 열린다는 의미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지켜온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는 시간으로 채우겠다. 또 국립공원의 생태문화적 가치 재창조와 기후위기시대에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산과 바다를 지켜온 국립공원공단 직원을 비롯한 환경활동가들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월출산 국립공원박람회에 전국 23개 국립공원이 영암에 모인다. 국립공원과 연결된 77개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국립공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올해 첫 월출산 국립공원박람회를 시작으로, 향후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와 '세계 국립공원박람회'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외 국립공원 네트워크 구축, 주민과 만드는 생태자원, 기업과 함께하는 흑자 축제, 국립공원 관계인구 확대 등 박람회 발전 포부도 세웠다.

남도 평야에 우뚝 솟아 상하좌우가 한 눈에 보이는 월출산, 아침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월출산, 영암이 기(氣)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월출산이 있어서다. 달빛생태도시 영암은 국립공원 도시로 우뚝 설 체비를 마쳤다. 가장 작은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꿈을 품은 영암 월출산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전일광장 | 이기언 한국지방정부연구원·교육학박사

영원한 나의 멘토, 우리형 신해철



“고흐의 불꽃같은 삶도 니체의 상처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좋은 직장가 가족안에서의 안정과 은행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사춘기 여학생인 필자에게 고흐와 니체를 통해 삶을 고민하게 했던 사람. 바로 가수 신해철이다. 세상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였던 예민한 중학생은 신해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위로 받았다.

당시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서정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발라드 가수들의 팬이었고, 필자의 눈엔 그것이 한가한 사랑타령으로만 들렸다.

신해철이 사회문제를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만든 음악은 그동안 관심없었거나 몰랐던 주제를 생각하게 했다. 그때 썼던 일기를 읽어보면 너무 유치해서 오그라드는 내용도 있지만, 나름 심각하고 진지하게 학교와 사회에 대해 고민한 대목도 있다.

되돌아보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를 신해철이 대신 해준 것 같다.

‘힘겨워 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는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되던 1995년 동성동본 커플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은 유교적인 관습으로 아버지의 성씨에 따라 가족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법제화 된 데에서 온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신해철이 만든 음악과 여성 단체의 노력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은 2005년 폐지되었다.

신해철은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등 당시 최고 인기 스타들이 참여하는 ‘내일은 늦으리’라는 앨범과 콘서트를 기획했다.

이는 지구와 환경 오염의 위험을 알리는 환경보존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당시엔 먼 얘기 같았던 환경 문제가 지금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이 되었고, 그 때 만들어진 노래 가사(“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

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주”)에 담겼던 바람은 이제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 외에도 신해철은 뮤지션으로서 사회 문제를 음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TV 토론에 여러차례 출연하여 학생 체벌 금지, 간통죄 폐지 등 광장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하지만 유머러스하게 대중을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해철의 음악이 모두 비판적이고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노래가 더 많았다.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했고,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고 당장 해보라고 응원해주었다. 그리고 그 언젠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행복하라고 요구했다.

10월 27일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신해철을 추모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어 방영 중이다.

유독 그를 추모하는 방송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신해철이 없는 삶이 답답해서가 아닐까? 잘못된 일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거침없이 독설을 퍼붓는 소신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건넬 줄 아는, 우리가 닮고 싶은 멋진 사람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10대 초반 필자의 멘토가 되어준 신해철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멘토이자 응원단장이다. 삶의 순간 순간 맞닥뜨린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곳 높은 곳으로 날아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마, 앞만 보며 날아가야해. 너의 꿈을 비웃는 자는 애써 상대하지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너의 날개는 퍼질거야. 더 높이, 더 멀리, 너의 별을 찾아 날아라 소년아”

필자의 고민에 공감해주었던,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영원한 나의 멘토 신해철. Here I stand for you.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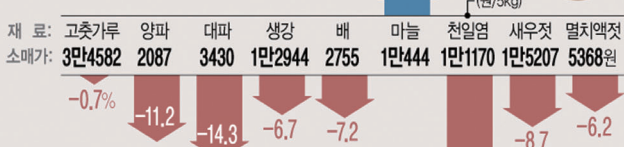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배추 도매가격 단위: 원/포기



기타재료 소매가 등락률

10월 하순기준 전년 대비, 단위: %, 원/k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재료 14개 품목: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뉴스IS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